

6·25의 총성과 흠냄새가 잊히지 않는 조형원 어르신

영암군, 호국보훈의 달 맞아 국가유공자·유족 31명 위문 방문

“그날의 총성과 흠냄새는 지금도 잊히 않는다.”

영암군 영암읍에 사는 103세 국가유공자 조형원 어르신은, 75년 전 6·25전쟁 소리와 냄새로 떠돌았다.

20대 초반 꽃다운 청춘에 총을 들고 조국을 지키던 경험은, 100세를 훌쩍 넘긴 이 순간에도 어르신의 기억 속에 생생했고, 그때를 전하는 말에는 힘이 넘쳤다.

16일 우승희 영암군수를 포함한 영암군위문단이 호국보훈의 달 맞아 국가보훈대상자와 그 유족의 가정을 찾아 감사의 인사를 건넸다.

정정한 모습으로 방문단을 맞은 조 어르신은 당시 총검술로 군살이 박혔다는 손을 내밀며 우승희 영암군수에게 악수를 청했다.

우승희 영암군수는 어르신의 마디마디 굵은 손가락을 어루만지며 그날의 헌신에 고마움을 전했다. 조 어르신은 “내

가 이렇게 건강하게 살아있는 것도 다 국가 덕이다”고 화답했다.

당신이 청춘으로 지켜낸 국가에서 살아가면서도 대한민국의 소중함을 한낱 한시도 잊지 않은 어르신의 마음에 방문단 모두가 숙연해졌다.

6·25전쟁 경기도 태릉전투 등에서 활약한 조 어르신은 중사로 전역, 2001년 국가유공자로 선정됐다.

11~16일 영암군위문단은 기억과 존경의 마음으로 조 어르신 가정 이외에도 30가구를 방문해 유공자의 희생과 그 유가족의 헌신을 기리고, 영암군 농산물 등이 담긴 위문품을 전달했다.

호국보훈의 날을 맞아 국가유공자와 유족을 위문하기 위해 영암군이 마련한 위문 행사는, 나라를 위해 몸을 바친 분들의 사연이 더해지며 살아있는 역사 교육장이 되기 충분했다.

위문을 마친 영암군위문단은 한목소



리로, 지금 대한민국이 누리는 일상이 국가유공자들의 희생 덕분이라고 확인하는 계기가 됐다는 소감을 전했다.

우승희 영암군수는 “감사를 넘어 보훈이 생활 속으로 녹아들도록 하겠다.

지역사회가 참전용사와 상이군경의 숭고한 희생을 잊지 않도록 영암군민이 생활에서 실천할 수 있는 다양한 보훈사업들을 시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영암/김희선 기자



고흥군, ‘솔로엔딩, 설렘 in 고흥’ 성공적 마무리

고흥군(군수 공영민)은 지난 14일부터 15일까지 썬밸리리조트에서 1박2일 간 청춘남녀 만남 행사인 ‘솔로엔딩, 설렘 in 고흥’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고흥愛 솔로몬 봉사단’의 연계 사업으로 미혼남녀에게 자연스럽고 건전한 만남의 기회를 제공하고, 저출산 문제 해결과 결혼 진화적 사회적 분위기 조성을 위해 마련됐다.

미혼남녀 20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이번 행사는 팀빌딩 게임, 연애 특강, 로데이션 미팅, 청춘 바베큐 파티, 지목 데이트, 커플 매칭 순으로 진행됐으며, 참여자들은 긴장을 풀고 자연스러운 분위기 속에서 소통하며 서로를 알아가는 시간을 가졌다. 최종적으로 5쌍(50%)의 커플이 탄생하는 성과를 거뒀다.

참가자 중 한 명은 “사람을 만나기 힘든 시대에 이번 행사를 통해 다양한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어서 좋았고, 평생을 함께하고 싶은 소중한 인연을 드디어 찾았다”며 행사를 기획해 준 고흥군에 감사함을 전했다.

군 관계자는 “결혼 적령기의 청년들이 건전한 만남을 통해 소중한 인연을 맺고, 결혼으로 이어져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며 “결혼에 성공한 커플에게는 인센티브도 지원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한편, 고흥군은 ‘솔로엔딩, 설렘 in 고흥’ 두 번째 만남 행사인 ‘청춘 맛남 식당’을 하반기에 추진할 예정이며, 앞으로도 다양한 만남의 기회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고흥/박도일 기자

‘2025년 장한청소년 초청행사’ 성황리에 개최

장한청소년 초등학교 27명에게 표창장 및 장학금 수여

광양시는 지난 6월 16일 광양교육지원청 햇살동 시청각실에서 개최된 ‘2025년 장한청소년 초청행사’가 청소년과 학부모, 교육 관계자들의 뜨거운 호응 속에 성황리에 마무리됐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사)한국BBS광주전남연맹 광양시지회 주관으로 열렸으며, 광양시, 광양시의회, 광양교육지원청, 광양경찰서가 후원 기관으로 참여해 지역사회 청소년 육성에 대한 공동 의지를 다시 한번 확인했다.

‘장한청소년 초청행사’는 어려운 가정 환경 속에서도 바른 품행과 모범적인 태도로 타의 귀감이 되는 청소년을 발굴·격

려하기 위한 행사로, 1992년부터 매년 개최되고 있다. 올해는 광양 관내 초등학교의 추천을 통해 27명의 학생이 장한청소년으로 선정됐다.

이날 행사에서는 광양시를 비롯한 후원기관의 표창장 수여와 함께, (사)한국BBS광양시지회가 마련한 장학금이 전달됐다. 또한 표창 수여에 이어 청소년들의 도전 정신과 협동심을 함양하기 위한 여수 루지 테마파크 견학 체험도 진행돼 큰 호응을 얻었다.

정인화 광양시장은 “장한청소년으로 선정된 여러분은 우리 사회의 희망이자 미래”라며 “이름을 기억하고, 삶의 여정에



서 마주할 어려움 앞에서도 용기를 갖고 꿈을 향해 나아가길 바란다. 광양시와 지역사회는 언제나 여러분을 응원하고 있다”고 격려했다.

한편, (사)한국BBS 광양시지회는 장한

청소년 초청행사 외에도 지역 내 소외계층 청소년을 대상으로 1:1 결연 후원, 생활비·학비 지원 등 다양한 나눔 활동을 꾸준히 펼치며 청소년 복지 증진에 앞장서고 있다.

광양/신선호 기자



담양군 월산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감자로 나눔 실천

담양군 월산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위원장 이용우)는 지난 12일 노인일자리 참여자들과 함께 재배한 감자를 수확해 경로당 27개소에 나눔을 실천했다.

감자 재배를 위해 협의체 위원이 유희지를 무상으로 제공하였으며, 지역사회에서 무료로 퇴비를 지원하는 등 재배를 위한 따뜻한 도움의 손길이 이어져 의미를 더했다.

노인일자리 참여자들과 함께 감자를

키워 총 176상자(10kg 외)를 수확하였으며, 판매한 일부 수익금은 내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복지사업으로 사용할 예정이다.

이강임 월산면장은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감자 수확에 힘써주신 협의체 위원들과 노인일자리 참여자분들에게 감사드리며, 다양한 나눔 활동을 통해 사각지대 없는 복지를 실현하겠다”라고 말했다.

담양/이종욱 기자

함평군 나산면, 폭염 취약계층 30가구에 여름 이불 지원

폭염 대비 안전교육 및 행동 요령 안내 실시

전남 함평군 나산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공공위원장 정석, 민간위원장 정전수)가 여름철 폭염에 대비해 주민 건강 보호에 나섰다.

함평군은 17일 “나산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지난 16일 ‘여름쿨쿨 지원사업’을 통해 지역 내 취약계층 30가구에 여름 이불을 지원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나산면 지역특화사업의 일환으로, 무더위에 취약한 독거노인과 저소득

독거가정이 쾌적한 여름을 보낼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추진됐다. 초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가정을 방문해 여름 이불을 전달하며 불발더위로 인한 건강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여름철 안전관리 수칙과 행동요령도 함께 안내했다.

특히, 폭염 시 실내의 활동을 자제하고 충분한 수분 섭취와 시원한 장소에서 휴식할 것을 권장하며 무더위 시간대(오후 2시~5시)에는 야외활동을 피할 것을 당부



했다.

정석 나산면장은 “작은 정성이지만 이웃들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여름을 보낼

수 있기를 바란다”며 “여름철 군민 건강 관리에 각별한 주의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함평/전광훈 기자

광전매일신문

TEL. (062) 525-9775
FAX. (062) 528-4566



한수위의 에너지 한수원이 만드는 중!

미래형 소형원자로(SMR) 개발
세계 곳곳에 원자력 수출
클린에너지 원자력 수소

대한민국 에너지를 한 수 UP!

 한국수력원자력주